‘주의력 결핍·산만’ 방치하면 성인돼서도 겪는다

광주·전남 5년간 1만3천명 진료
ADHD 증상 아동기 주로 나타나
집중 어려움·과잉행동·충동성 등
적절한 예방치료 적기에 이뤄져야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장애로,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과잉행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성인이 돼서도 증상이 나타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기에 치료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ADHD로 진료받은 인원은 1만 3,466명(광주 6,514명·전남 6,95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955명 ▲2018년 2,275명 ▲2019년 2,663명 ▲2020년 2,836명 ▲3,737명으로, 5년 사이 9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준 전체 환자 중 남성이 2,668명으로 여성(1,069명)보다 두 배 이상 웃돌았지만, 진료인원 증가는 2017년 대비 2021년 여성(192.8%)이 남성(67.7%)보다 가팔랐다.

특히 연령별(전국 기준)로는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23.8%, 20대가 21.6%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저연령대에서 환자가 많았고, 여성 환자 중에서는 20대가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도 불리는 ADHD는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발달질환이다.

ADHD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뇌의 집중과 충동을 조절하는 영역과 경로의 이상을 초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병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전 및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증상은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며, 부수적인 증상으로 감정 조절의 어려움,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의 저하 등이 동반된다.

그동안 주의력 장애 아동들은 성인이 돼 가면서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고 나아진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이뤄지면서 60% 이상이 성인이 돼서도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주의력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인 관계가 형성되는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재은 교수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환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통상 초등학교 입학 후 진단돼 단기적 치료가 아닌 수년간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증상을 보여도 지켜보다가 고학년이 돼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진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ADHD 증상을 방치하게 된다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예방을 위해선 적절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이 최근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 최신형 MRI 장비 MAGNETOM Vida 3T를 추가 도입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조선대병원, 최신형 MRI 추가 도입

영상 촬영 최대 10배 빠르게 수행

조선대병원이 최근 본관 1층 영상의학과에 최신형 MRI 장비(MAGNETOM Vida 3T)를 추가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한 마그네톰 비다 3T는 Compressed Sensing Cardiac Cine를 통해 자유 호흡방식의 고해상도 심장 MRI 촬영이 가능하다.

영상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MR Cardiac Cine 영상 촬영을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수행한다.

또한 환자의 고유한 생체 시그널을 자동으로 감지해 MRI 검사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환자 케이스를 상황에 맞게 검사할 수 있다.

재 스캔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검사 일정 운영 관리와 첨단 임상 영상 촬영 및 임상 연구에서 일관성 있는 고품질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 매트릭스 Select&GO는 시스템 전면의 터치식 인터페이스다.

원터치 방식으로 여러 부위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환자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지능형 신체 모델이 검사 부위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환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김경종 병원장은 “최신형 MRI 도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고품질 검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조선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적극 도입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대병원, 디지털 도서실 구축…국립대병원 최초

전자저널·eBook 검색 가능
의료진 교육·연구 도움 기대

전남대학교병원 의학도서실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디지털 도서실을 구축했다.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의학도서실은 두 달간 홈페이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 지난 1일부터 디지털 도서관을 정식 오픈했다.

이로 인해 전남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의학도서실 중 최초의 디지털 도서실을 구축해 선진 의학도서실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은 신속한 서비스와 독자적인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 본·분원 의료진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의학도서실에는 전자도서관시스템(ILUS Cloud Service)과 학술자원 통합검색 솔루션(EBSCO Discovery Service)을 신규 구축해 본원과 분원의 의료진들이 방대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총 6만 4,574종의 전자저널이 탑재돼 있으며, eBook 1만 213여종(의학 9,512, 교양 701), Web DB 8종, 단행본 3,255여종 등이 있다.

전남대병원 의학도서실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다 독자적인 운영을 시작한 후 의료진의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자체 전자도서관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남대병원 교육수련실(실장 주재균 대장항문외과 교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국립대병원 최초로 디지털 도서실을 구축하게 됐다.

주재균 교육수련실장은 “손쉽게 논문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실이라는 플랫폼이 구축된 만큼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는 임상의사과학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병원의 eSMART 시스템 전환에 따라 선진 의학도서관 시스템을 확보해 병원 수련환경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들의 연구성과와 학습증대에 도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 광주FC 의료지원

전공의·간호사 등 3명 파견

조선대병원이 최근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개막전 의료지원에 나섰다.

13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개막전에는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를 비롯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참여했고, 응급상황을 대비해 병원 앰블런스도 파견됐다.

이준영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FC 팀 닥터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선수들의 부상치료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꾸준히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이준영 교수는 “스포츠 선수 관리를 담당하는 팀 닥터로서 대표팀의 부상방지 및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단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병원은 최근 광주FC 개막전에 (오른쪽부터)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를 비롯한 함권형 전공의, 이진솔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파견, 의료지원에 나섰다. /조선대병원 제공